

# 환상(The fantastic), 그 모호함과 새로움:

김영하 단편집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에 수록된 세 단편을 중심으로

장은 광\*

## I. 들어가며

김영하의 단편집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이하 『엘리베이터』)가 출간된 지도 어느덧 15년이 지났다. 그가 소설 속에 다뤘던 환상적 소재들, 가령 ‘흡혈귀’나 ‘투명 인간’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신선한 소재로 다가오질 않는 시대다. 환상에 대한 논의는 단지 리얼리즘 문학의 위기에 대한 일종의 타개책으로 접근되었고,<sup>1)</sup> 그 신선한 기법은 취해졌으나 환상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여전히 구석진 곳에 윤택되어 있다. ‘환상 문학’이라는 개념 또한 환상 문학의 타이틀을 달고 출간되는 이른바 ‘장르 문학’들의 반복되는 클리셰(Cliché)들로 인해 잘못 이해되고 있었다. 또한 환상적 요소를 갖추었다고 평가받는 작품들은 대개 현실을 비틀어 보여주는 것에 환상의 목적을 삼고 있을 뿐이라 환상성 그 자체는 주목받지 못했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부 졸업

1) “‘현대적 환상’이 이처럼 텍스트 바깥의 ‘실제 현실(the real)’과 ‘상상(the imaginary)’으로서의 허구 텍스트 사이의 틈새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면 최근 몇몇 우리 작가들에게서 발견되는 경향들은 눈여겨 볼 만한 것이다. - 장세진, 「90년대 환상 문학의 또다른 가능성」, 상허학보, 2003.  
환상에 대해 심도깊은 통찰을 보여준 이 글에서조차 ‘실제 현실’과의 연계성으로 규정하려는 한계를 보여준다.

김영하의 단편집 『엘리베이터』의 텍스트들은 ‘환상성’에 관련하여 연구되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현대 문명 비판과 현대인에 대한 알레고리(Allegory)로 보는 해석이 대부분이었고, 현실에 만연한 금기를 뛰어넘기 위한 대응 기제로 보는 해석<sup>2)</sup>도 존재했다. 그러나 이런 해석에 따라 김영하의 텍스트를 접하자니 주제를 쓸데없이 애둘러 말하는 느낌을 받게 되거나, 혹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인상이 생겼다. 단편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이하 「엘리베이터」)는 지루한 일상으로 느껴지며 냉혹한 이웃들로 가득한 세상에 대한 시니컬한 묘사로 받아들여졌다. 「흙혈귀」는 희한한 일로 파국에 이른 소설가 부부에 대한 당황스러움이, 「고압선」에선 쓸쓸한 투명 인간을 동정하는 감정으로 끝나는 것 같다.

그러나 환상 문학은 현실에 대한 대리만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실제 많은 환상 적인 소재를 다룬 문학들이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뜯어 고치려는 욕망으로 가득하고 또 그런 것을 환상의 본질로 치부하는 이들이 많지만, 환상에 대한 츠베탕 토도로프(Tzvetan Todorov)의 엄격한 정의<sup>3)</sup>는 이들을 우화(Fable)와 로망스(Romance)의 세계로 추방시킨다. 로즈메리 잭슨(Rosemary Jackson)은 환상의 개념을 우화와 로망스가 추구하는 방향이 뒤집힌 것으로 본다. 절대적인 세계의 완결을 추구하는 그런 서사들과는 달리, “절대적인 것에 대한 탐색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적 환상은 단지 부재와 공허를 폭로할 뿐이다.”<sup>4)</sup>

그래서 본고에서는 단편집 『엘리베이터』에서도 환상적 소재와 기법이 돋보이는 단편 세 개(「고압선」, 「흙혈귀」,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환

2) 우찬제, 「미리 쓰여진 이야기와 새로 쓰는 텍스트 - 김영하론」, 『문학과사회』, 문학과지성사, 1999.

3) “환상적인 것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를 요구한다. 첫째로, 텍스트는 독자들로 하여금 ... 사건들에 대하여 자연적인 해석과 초자연적인 해석 사이에서 망설이도록 강요한다. 둘째로, 그러한 망설임은 등장 인물도 마찬가지로 느낄 수 있다. ... 마지막 세 번째로, 독자가 텍스트에 대하여 ... ‘시적’ 해석만큼이나 알레고리적 해석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 츠베탕 토도로프, 최애영 옮김, 『환상 문학 서설』, (주)일월서각, 2013. 68-69쪽.

4) 로즈마리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환상성: 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4, 211쪽.

상이 어떻게 현실을 모호하게 만들고, 또 현실 인식을 새롭게 하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먼저 「고압선」을 살펴보며 알레고리적 해석에 저항하려는 환상적 서사가 어떤 것인지 짚어보고, 「흡혈귀」에선 텍스트의 진실을 추리해보고 그 성과를 논해본다.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를 통해 환상적 서사가 이르는 지점을 엿보고자 한다.

## II. 환상과 알레고리 - 단편 「고압선」 분석

「고압선」에선 환상 문학에서 자주 쓰였던 모티프 ‘투명 인간’이 현대적 배경 속에서 재현되었다. 다만 여기서는 투명 인간이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 없고 무능하며 잊혀지는 그런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투명인간다운 힘과 능력을 발휘할 때가 단 한번 있었는데, 그건 자기보다 낮은 사회적 위치인 경비원들을 협박하는 데 쓰여졌을 뿐이다.

‘투명인간’이 된다는 것은 결국 불쌍한 주인공의 전락(轉落)에 불과한 것일까? 서사의 큰 줄기 몇 가지를 검토하면서 해석해보자.

### 점쟁이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아무런 설명 없이 등장하는 기이한 존재가 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알 수 없는 존재. 남자는 점쟁이의 경고를 잊었고, 그 결과 파국을 맞게된 것처럼 이야기가 진행된다.

전통적인 서사물에서 점쟁이가 담당했던 역할은 일정했다. 금기를 제시하고, 미래를 예언했다. 간혹 그 역할에서 더 나아가, 이야기에 깊숙히 개입하여 금기를 어긴 자들을 약간이나마 구제하기도 하고, 또 파국을 피하게끔 하는 역할을 할 때도 있었다. 점쟁이는 하늘의 지식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보였기에 그 발언들은 모두 진리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그 예언들은 결국 성취되어, 내려진 예언을 피해보려 애쓰는 자라 할지라도 이를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고압선’ 이야기의 배경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 남자는 점쟁이의 말은 쉽게 잊었다. 자신이 회미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을 때, 비로소 그 점쟁이의 말을 되새길 수 있었다. 잠시 사랑을 멀리하며 악화되는 상황을 막아보려 했다. 그러나 남자는 마지막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결국 여자의 아파트에 찾아가 기다리는 순간 투명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만 보면 전통적 서사의 플롯을 그대로 따라가는 듯 보인다. 여기서, 점쟁이의 예언의 내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금기에 대한 예언 내지는 경고가 내려졌을 때, 그 내용은 항상 ‘행동’에 관련된 것이었다. 주로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며, 그 금지를 어겼는지 여부에 대해 별다른 고민 없이 알 수 있다. 그러나 ‘고압선’에서 점쟁이의 예언은 구체적인 행동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감정의 변화에 달려 있었다.

“여자를 사랑하면 ... 당신은 사라집니다.”<sup>5)</sup>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예언이 보통의 남성에게 내려진다면 누가 투명 인간이 되고 말 것이다. 어머니, 딸, 지금의 배우자, 연인 등 사랑 없이 여자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 이 예언이 내려질 당시의 남자에게는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여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여자를 은행에서 보고 도와준 이후, 그 여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을 때 투명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면 그제서야 사랑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 사랑은 그의 인생 전체를 휘감아 망가뜨릴 정도로 격렬하게 보였고, 그래서 그의 투명화는 비도덕적 불륜 때문에 처벌받은 것처럼 보였다.

## 사랑

하지만 그 ‘사랑’은 정말 사랑이었을까.

5) 김영하,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문학동네, 2010, 181쪽.

“아,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sup>6)</sup>

엄마 같은 여자의 품 속에서 감격에 젖어 내뿜은 고백은 갑작스레 모든 것을 씌늘하게 만들었다. 세상은 그의 사랑을 거부했다. 여자는 그의 사랑에 대해 연극하냐고 반문했다. 마치 순애보처럼 보이는 그의 사랑이 비극으로 끝난 작품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일까.

힌트는 여자와의 첫 섹스 이후의 서술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그를 들뜨게 만든 것은 사랑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격이라기보다는 범법의 스타일과 처음 자각한 남성성이었다. 그녀는 젖가슴과 엉덩이로 그에게 흔적을 남길 뿐, 섹스 이후론 그 여자의 인생에 대한 어떤 호기심도 존재하지 않았다. 정리 해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술을 마시며 떠올렸던 생각은 그저 멋진 섹스에 대한 것일 뿐, 스스로도 몸만 그리워하는 사랑이라고 자각하기에 이르렀다. B와 그녀의 섹스 장면을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여자’를 사랑해본 적이 없었다. 밤잠 이루지 못했던 대학 시절의 열정도 지금의 감정이랑 다를 바 없는 내용이었다. 상황만 바뀌었을 뿐. 그의 사랑법은 결코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한번 수그러든 남자의 성기는 다시 발기하지 않았다. 아내의 탄식이 그의 가슴을 뚫고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더 회미해진 것만 같았다.”<sup>7)</sup>

이 소설의 절묘한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한다. 김재경(2010)의 지적, 그의 불륜이라는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징벌을 받는다는 분석은 이 부분으로 인해 성립되지 않는다. 점쟁이의 예언대로라면, 그리고 그의 사랑이 육체에 대한 욕망의 실현이나 남성성의 회복 등을 말하는 것이었다면, 성기가 제대로 발기해서 제 기능을 발휘할 때 그의 투명화가 진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정리 해고’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내 앞에서 잘못을 싹싹

6) 김영하, 위의 책, 195쪽.

7) 김영하, 위의 책, 200쪽.

빌고, 또 아내의 탄식이 가슴을 뚫고 지나가는 장면에선 정반대의 상황인데도 투명화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투명화는 점쟁이의 예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남자가 불륜을 저지르든 아내에게 충실하려고 하든 상관없이 그의 투명화는 진행되었다.

## 투명화

그의 투명화에 대해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불륜에 대한 징벌이라는 전통적 도덕관을 대입시키기엔 다른 인물들이라고 딱히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다. 오히려 곤경에 처한 여자를 돕고, 아내와 노모를 먹여 살리기 위해 애쓰는 그는 선량한 성품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이현경(2013)에선 이를 자본주의 사회를 구동시키는 도구화된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화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런 시각에서 그의 투명화를 바라보자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과정이다. 문제는 그 객관화 과정이 자기 파괴적이라는 점이었다. 정리 해고라는 위기를 앞둔 그에게 스스로를 구성할 고유의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주위 사람들이 바라는 바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소시민에 불과한 그는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존재였다. 은행에서의 자기 자리는 출근 시간이 지난 몇 분만에 누군가가 차지해버렸다.

결국 이렇게 투명화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외당하는 인간을 설명하는 알레고리에 불과하다면, 이 작품에서 환상성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환상은 알레고리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토도로프가 지적했듯이<sup>8)</sup> 이 투명화 사건이 축자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환상적이라 말할 수 없다.

8) “알레고리는 같은 단어들에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때로는 본래 의미가 사라져야 한다고도 하고, 때로는 두 의미가 모두 현존해야 한다고도 한다. 둘째, 그 이중적 의미는 명백하게 작품 속에 지시되고 있다. 그것은 독자의 해석(자의적이든 아니든)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 토도로프, 위의 책, 131~132쪽.

그에 따르면, 텍스트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일에 독자가 망설이게 되는 이유는 이 알레고리를 지지할 근거가 텍스트의 나머지에 의해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다.

정리 해고와 투명화 현상의 관계는 단순히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투명화가 시작된 뒤에야 정리 해고의 분위기가 언급되며,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을 대출시켜줄 만큼 나름대로의 위치가 있었던 그가 해고의 불안에 떨기 시작하는 것은 투명화가 시작된 다음부터였다. 지점장은 그에게 휴직을 권고하며, 예들러 해고를 던지시 시사하면서 그 이유를 그의 투명화에 두었다.

“내가 조금 투명해졌다고, 나를 몰아내고 자기들만 살아남으려 하다니, 나쁜 놈들!”<sup>9)</sup>

확실히 그의 투명화는 실제적으로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자의 아파트에서 벌어진 경비원들과의 에피소드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화였다. 여자를 만나고 젓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고 사랑없는 격렬한 섹스를 하면 모든 것이 치유되고 원상태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은 투명인간에게겐 불가능한 것이었다. 아직 해고당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투명해지지만 않았다면 여자도 거부하진 않았을 것이라 남자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투명 인간이 되고서야 그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여자의 아파트에서 진실을 볼 수 있었다. 투명해지지 않았다면 또다시 가식적인 모습들만 보게 되었을 것이니, 투명 인간이 된다는 것은 실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임에는 분명했다.

## 타골 공원

그런 그가 향한 곳이 ‘타골 공원’이라는 것은 다시금 알레고리를 포기할

9) 김영하, 위의 책, 202쪽.

수 없게끔 만든다. 탑골 공원은 대개 할 일 없는 은퇴한 노인들이 시간을 때우기 위해 모이는 곳이라는 배경 지식 하에서, ‘투명 인간’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텍스트 너머의 묵직한 의미를 획득한다. 무기명과 일반 명사들의 연속된 서사 속에서 ‘종로’, ‘탑골 공원’이라는 현실의 지명은 ‘포카리스웨트’나 ‘콜라’처럼 가볍게 넘길 그런 명사는 아니다.

투명 인간이 사람들에게 있으나마나한 존재인 것처럼, 탑골 공원의 터줏대감들 또한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무료 급식을 기다리고,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소일거리로 하루를 보내는 모습은 투명 인간의 결말과 전혀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런 날들이 계속, 계속 되고 있다. 바로 지금까지도.”<sup>10)</sup>

이를 통해 투명화 현상에 대한 확대된 해석을 얻게 되었다. 세월에 마모되어가는 인간 존재의 메타포(Metaphor). 이를 멈추고 되돌리고자 하던 남자의 노력이 아무런 소용 없었던 것도 결국 인간으로서는 막을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이기 때문이었다. 점쟁이가 보여주는 하늘의 법칙은 되돌릴 길조차 제시하지 않는 무자비한 것이었다. 투명 인간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투명화 이후의 시간들이 가치 있게끔 발버둥 쳐야하지 않을까. 그 경고엔 일말의 가능성이 있었다. 존재가 사라진다는 표현을 썼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을 뿐, 투명 인간은 다른 이들이 만지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존재였다. 기나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아도 묵직한 존재감으로 느껴지고 또 그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본다. 그렇기에 소외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남자의 결말은 씁쓸한 뒷맛만을 남겨준다.

## 고압선

서사의 큰 줄기와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 제목 ‘고압선’은 쉽사리 그 의미

10) 김영하, 위의 책, 207쪽.



를 드러내주지 않는다. 그래서 고압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었다.

현대 사회의 필수 동력인 ‘전기’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책상을 어지럽히는 각종 전선들, 컴퓨터를 작동시키고 휴대폰을 충전하며 스탠드를 밝히는 전선들로 인해 겨우 그 존재를 실감할 뿐이다. 이제 기수령 발전해 전선 없이 휴대폰을 충전시키기도 한다고 하니 머지않은 미래의 가정에선 전선을 찾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런 일상적인 가정용 전선과는 다르게, 고압선은 소음과 진동이 매우 강하다. 그 속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기 어렵다. 발전소에서 직결되는 전선이라 무선화시키기도 어렵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볼 때, ‘고압선’이란 강한 존재감, 사라질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메타포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소음과 진동을 편하게 느낄 사람은 없었다. 게다가 고압선에서 발산되는 강력한 자장은 알게 모르게 생물에 끼치는 영향이 좋지 못했고,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가까이하기 싫어했다. 그래서 고압 송전탑에 관한 갈등이 오래동안 뉴스의 주요 테마가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고압선’이란 이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도 사회의 구성원들이 기피하는 그런 존재에 대한 메타포라는 정반대의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 알레고리적 해석

초자연적 모티프가 서사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그 서사가 하나의 알레고리로 귀결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문학적 시대와는 상관없이 우화, 혹은 로망스라고 말할 것이다. 토도로프는 이런 특징을 지닌 서사들을 ‘경이’ 장르로 묶었다. 그런 이야기 속에서 초자연적인 인물이나 사건들은 전혀 놀랍게 다가오질 않는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인지 등장 인물들은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며, 의심하지도 않는다. 독자들도 마찬가지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단순한 알레고리와 주제 의식 덕분에 텍스트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로지 잭슨의 해설은 다음과 같다.

“경이로운 것은 독자의 참여를 위축”시킨다.<sup>11)</sup>

그러나, 아직 제대로 된 ‘환상’을 맛보았다고 말하긴 어려운 단계다. ‘고압선’은 알레고리의 강력한 자장 속에서 벗어나려 애를 쓰지만, 텍스트의 말미에서 그 힘겨움을 토해낸다. 텍스트 속에서 자유로이 유희하고 싶은 독자는 ‘고압선’의 서사를 가지고선 아직 만족할 수 없다. 의미의 모순이 반복되고, 부정적 진술이 다시금 부정되는 연쇄가 이어지는 모호한 텍스트라면, 알레고리적 해석에 대한 욕망을 충족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 III. 알레고리를 거부하는 환상 - 「흡혈귀」 이야기

‘흡혈귀’ 이야기는 장편소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를 발표한 소설가 김영하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날아온 한 편지를 요약하며 소개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그 편지는 어떤 한 여자가 자신의 남편이 흡혈귀라고 주장하는 편지였다. 그리고 조목조목 그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그 소개가 끝난 뒤 소설가 김영하가 내리는 판단은 조금 달랐는데, “살다보니 별 신기한 일도 다 보겠단”며 자기 생각엔 아무래도 편지를 보낸 여자가 흡혈귀인 것만 같다고 짐작한다.

작가는 이 글을 풀어내는 열쇠를 바로 이 결말에 두었다. 누가 과연 흡혈귀일까?

---

11) “경이로운 것은 전지적이며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서술자의 최소화된 가능성적 서사로 특징지어진다. 경이로운 것은 독자의 참여를 위축시키고, 가나긴 시간적 거리에 의해 봉쇄되고 고정된 과거의 사건들을 재현하며, 결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래서 공식적인 결말 또한 ‘그리하여 그들은 그 후로 행복하게 잘 살았다’이거나 이것의 변형이다. 이와 같은 서사적 결말은 역사에 대한 수동적 관계의 한 유형이다.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독자도 하나의 예상되는 패턴을 재연하는 사건들의 단순한 수용자일 뿐이다.“ - 로즈마리 잭슨, 위의 책, 49-50쪽.

## 남편은 흡혈귀

내 남편은 흡혈귀다. 김희연이라는 여자가 보낸 편지의 주장이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섹스에 무관심하다.
2. 내 생각을 읽을 수 있고, 또 문학에 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
3. 식욕이 적고, 김치를 싫어하며 스테이크를 좋아한다.
4. 컬트 영화를 좋아한다.
5. 테트리스와 지뢰찾기 게임만 좋아한다.
6. 자고 일어난 베개 근처와 샤워를 끝낸 욕실에서 머리카락을 찾을 수 없다.
7. 아이를 가지기 싫어한다.
8. 관에서 잠을 자기 좋아한다.
9. 서재의 자료 묶음들과 그의 소설과 글 중에서 암시를 발견할 수 있다.

소개된 편지 내용은 디테일한 묘사와 분위기에 젖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겠으나, 이렇게 목록으로 정리해보면 무엇이 ‘결정적 증거’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작중 인물 김영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은 유머러스하게 수궁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던 것이다.

이 근거들에 대해서 남자는 하나하나 다 반박을 했다. 모든 사람이 섹스를 좋아하거나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며, 염세적인 세계관, 결벽증을 가지고 있다면 그릴 수 있는 항목들도 많다. 김치를 싫어하고 스테이크를 좋아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고, 어두컴컴한 관에서 잘 때 아늑함을 느끼는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로라고 할 순 없다. 머미형 침낭에서 자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지도 모른다.

비극적인 부부의 결말은 이 대화에서 복선으로 나타난다.

“말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벌써 했을 것이다. 인간이 인간을 아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그럼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하지 않을 때도 많다. 지금이 그렇다.”

“그래도 말해주세요.”

“말하고 싶지 않다. 대신 너도 말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게 편하지 않나?”

“이해할 수 없어요.”

“어차피 세상이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차고 넘친다.”<sup>12)</sup>

과거에 대해 캐묻지 않는 남자에 대해 첫날 밤엔 고마워하다가도, 반대로 말하기 싫어하는 남자에게 알 권리를 주장하는 여자. 여자는 인간을 아는 일이 가능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남자의 독특한 성격과 행동에 대해선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남자의 말은 전혀 신용하질 않았고, 자신이 보고 생각한 것만 믿었다. 그러다 결국 남자에 대해 인간이 아니다, 흠혈귀니까 저렇게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정말 남자가 그렇게까지 이상한 인간이었던 것일까?

‘컴플렉스의 원천’으로 소설가에게 느껴진 남자. 그가 아내의 주장대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다면 소설가는 컴플렉스를 느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작중 묘사된대로의 성격, 염세적이면서도 결벽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료 수집과 연구 활동에 있어서 매우 치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방 안에 관짝 하나 정도 있어 인물의 심리를 추적했다고 보는 일이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천재성’이란 말을 들을 정도의 식견을 지닌 인물이라면 무책임한 친구, 아내의 일상적인 생각 정도는 추측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가 설록 흠즈와 같은 관찰력과 추리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첫 눈에 군 복무 경력과 직업, 가정 환경과 현재의 상황을 파악해버리는 사람이 주위에 존재한다면, 순진한 사람에겐 마법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결국 이 모든 것은 아내의 과대망상이 아니었을까?

## 아내가 흠혈귀

그렇기에 한 번도 그가 흠혈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소설가는 오히려 이

12) 김영하, 위의 책, 92쪽.

런 편지를 쓴 아내가 흡혈귀인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한다.

명백하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편지의 내용을 내부 액자로 생각하면, 이 액자식 구성의 바깥에 위치한 소설가의 이야기에서 그 원인들을 찾을 수 있다.

1. 여자의 독촉 전화할 때의 날씨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2. 그 전화 통화가 끝난 다음 소설가는 섬뜩한 느낌을 느꼈다.
3. 여자의 목소리는 평범하지 않았다. 젊은 사람인지 늙은 사람인지, 감정이 어떠한지 알 수 없었다.

남자에 대한 아내의 해석은 그야말로 황당무계하기 그지 없는 것이었다.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로 생각되는 것이 왜 하필 ‘흡혈귀’였을까? 다른 근거들은 ‘흡혈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고, 그나마 관련되어있는 근거는 발표되지 않은 단편 영화 시나리오 하나와 관짝 하나, 그리고 짧은 메모뿐이었다.

그래서 소설가는 여자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남자는 그의 동료 문인이었고, 그의 허무주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만 이를 결코 초자연적인 존재로 연결시킬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짧은 메모를 통해 내린 그녀의 최종적 해석은<sup>13)</sup> 평론가와 동료 문인들의 남자를 향한 평가, 즉 ‘허무주의와 삶에 대한 극한의 염증’과는 양립불가능한 해석이다. 죽을 수 없어 절망하는 존재인 시나리오 속 흡혈귀와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본능을 버린 메모 속 흡혈귀는 같은 존재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은 실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닐까? 이 편지는 ‘첫 문장부터 맞춤법에 맞지 않는 단어들’을 구사하며 비약이 심하고 문맥이 손상되는 부분도 많았다. 인생을 흉내내는 영화를 싫어하며, 컬트 영화처럼 지루하고 허무한 영화를 좋아하는 그가 썼다는 단편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

13) “선생님은 아시겠죠? 살아남기 위해 서서히 적응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흡혈귀의 본능들을 상실해갔던 거죠. 빛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생활인이 되어야 했던거죠. 그러지 않으면 늘 허기에 시달릴테니까, 제 해석이 어때요? 그럴듯 하지요?” - 김영하, 위의 책, 104쪽.

‘그들이 진정한 흡혈귀였다면 지금도 어딘가에 살아있으리라’는 자막은 그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흡혈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여자의 본심이 아닐까 하는 것이 소설가가 품고 있는 의심이다. 비 내리던 가을날, 소름이 돋을 정도의 기기묘묘한 목소리에 대한 인상이 너무나도 강렬했기에, 근거는 빈약해 그저 짐작만을 할 뿐이다.

한편, 이 모든 것이 여자의 창작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 ‘제판에는 고심고심하며 쓴 글’이라는 표현을 주목해보자. 남자와 이혼하게 된 배경을 털어놓고자 하기에는 너무나도 긴 서사. 만약 남편의 동료 문인인 소설가를 믿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처럼 웅장한 작품을 썼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자는 답장을 바랐다. 여자의 마지막 부탁처럼 소설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설명한다면 이는 소설가를 멋지게 속인 것이 된다.

그러나 소설가는 여자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 그 시도가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이진 않는다.

### 흡혈귀는 소설가 혹은 작가

1972년생, 도곡동에 사는 김희연 씨는 실존하는 인물일까? 그리고 그 편지는 실재하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소설로 발표, 판매한 작가는 표절범에 불과하다. 편지 내용에 따르면 다른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그저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답장을 바랄 뿐이었다. 그 뒤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이 글이 발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마음대로 추측하며 남에게 소개하는 행위는 도덕적 판단을 받아 마땅한 행위다.

우리는 신뢰한다. 작가는 남의 이야기를 그저 요약, 소개하는 것 정도로 자신의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을. 게다가 그 이야기가 ‘실화’가 아닌 누군가의 창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sup>14)</sup> 한다면 더욱 그렇다.

14) 여자의 편지 속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시나리오의 핵심 줄거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독자는 소설을 읽으며 판단한다. ‘이 모든 것은 액자 바깥의 소설가가 만들어낸 이야기구나. 혹은, 이 소설가와 동일한 인물로 여겨지는 작가 김영하의 창작이구나.’ 편지의 내용에 대해 소설가가 손을 대었다고, 스스로 고백한 문단을 고려해보자. 단순히 맞춤법에 관한 것만 고친 것이 아니라 문장을 손보고, 문맥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더 큰 부분을 삭제하고 줄이기도 했다. 그 문맥이라는 것은 소설가의 판단이지 편지를 보낸 이의 뜻이 아니다. 결국 흡혈귀 이야기를 하기 위해 동료 문인 아내가 보낸 편지를 마음껏 이용했다는 비난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선, 이 편지는 소설가의 창작물이라고 봐야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자의 시각처럼, 또 그 여자의 편지를 판단한 소설가의 시각처럼 이 글 전체를 살펴볼 수 있다. 그 시각과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흡혈귀에 관한 단편 시나리오를 쓴 남자는 흡혈귀다’에서 ‘흡혈귀에 관한 편지를 쓴 여자가 흡혈귀다’로, ‘흡혈귀에 관한 편지 이야기를 쓴 소설가가 흡혈귀다’는 주장에까지 귀결된다.

그러나 폭주하는 기관차 같은 이 논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더욱 극단으로 치달아, 마침내 흡혈귀 소설을 쓴 작가 김영하가 흡혈귀라는 최종 결론에 이르고 만다.

정말 작가 김영하는 흡혈귀였던 것일까?

## 자기 부정으로 시작하는 서사

이 소설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런 극단적인 논리의 연쇄로 치달을 수 있는 이유는 소설 첫 머리에 그런 장치를 심어두었기 때문이다. 첫 문장에 언급되는 장편소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가 독자로 하여금 작가와 화자를 혼동하게끔 만드는 글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데, ‘흡혈귀’를 읽는 독자라면 이미 서점 서가에 꽂혀 있는 책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것이고 또 혼동하는 독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sup>15)</sup>

15)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의 화자, 자살안내인은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소설을 쓴다. 이 이야기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는데, 자살안내인이 소설을

할 것이기에, 소설가인 화자는 순식간에 작가와 동일시된다. 특히 여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영하’라는 이름이 드러나면서 이 연결이 더욱 견고해졌다.

그러나 화자 스스로 난감함을 표했듯이, 화자는 작가와 결코 동일한 존재가 아니다. 남편과 아내의 대화에서도 이 점을 다시 한번 드러난다.

“많은 독자들이 작가와 화자를 혼동한다.”<sup>16)</sup>

그래서 앞서 이루어진 흡혈귀에 대한 모든 추론은 서술 트릭에 속아 넘어간 행동이 되고 말았다. 누가 흡혈귀인지, 아니 흡혈귀라는 존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불분명해졌다. 소설의 시작부터 끝까지 흡혈귀에 대해 이야기해왔지만, 그 이야기가 흡혈귀의 존재를 증명해주진 않는다. 애시당초 흡혈귀의 정의 자체가 ‘피를 빼는 괴물’이기 때문에 피를 빼는 행위가 없는 서사는 흡혈귀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기에 ‘흡혈귀’는 일종의 ‘맥거핀(Macguffin)’<sup>17)</sup>으로 볼 수 있다. 남편이 흡혈귀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아내가 흡혈귀인 것인지, 소설가 김영하가 흡혈귀인 것인지 텍스트 속 창작된 존재인 것인지에 대해 추리하게끔 하는 것만으로도 ‘흡혈귀’는 텍스트 내부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체홉을 따라 총을 쏘고 싶어하는 독자들의 욕망을 간단히 배신해버리며, 텍스트는 불친절하게도 열린 결말로 마무리된다.

## 흡혈귀는 아무 것도 아니다

이렇듯 소설 속 이야기는 그 어떤 ‘리얼리티(Reality)’도 보장해주지 않는다. 토도로프가 말하는 현대적 환상은 ‘현실의 재현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쓰는 행위는 바깥 액자,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부 액자로 구성되어 있다. 「흡혈귀」 서사와의 연관성을 생각해보라.

16) 김영하, 위의 책, 102쪽.

17) 알프레드 히치콕(Alfred Hitchcock)이 고안한 극적 장치. 서스펜스(Suspense)를 이끌어내는 주요 수단. 맥거핀의 진정한 가치는 ‘의미의 상실’. 관객들에게 비판적 태도를 갖게 해준다. - 영화 사전, 웹, propaganda press, 2004.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 현대 언어학의 성취에 의해, 언어의 의미는 '실제 현실'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의미 또한 가변적인 것도 알게 되었다. 카프카의 '변신'은 이를 잘 드러내주는데, 작품 속 세계는 '실제 현실'과 전혀 다를 것 없이 묘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레고르의 변신에 대해 망설임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비현실적인 세계가 되고 말았다. 이제 텍스트와 독자가 경험하는 '실제 현실'이 일치하리라는 믿음은 구시대의 유물로 남게 되었다. 카프카 이후 보르헤스에 이르기까지 기표와 기의 사이의 신뢰는 점진적으로 해체되었고, 환상 문학은 이 간극에 집중한다.<sup>18)</sup>

로즈메리 잭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환상적 서사는 은유적 과정보다는 환유적 과정으로 움직인다. 하나의 대상은 다른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다른 것이 되고, 그 다른 것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며, 영원한 변화와 불안정성 속에서 하나의 형태는 다른 형태로 변형된다.”<sup>19)</sup>

소설 '흡혈귀'는 현실과 환상의 이분법적 세계관으로 해석하여 의미있는 알레고리를 부여하려는 시각들을 거부한다. 누가 흡혈귀인지, 그 진실은 텍스트를 가지고선 입증 불가능하다. 흡혈귀가 어떤 존재인지,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지, 텍스트는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텍스트 바깥의 정보라는 것도 다 다른 텍스트가 만들어낸 것들에 불과하다. 기존의 텍스트로 인해 쌓여온 정보는 새로운 텍스트로 인해 무너지고, 또다른 체계를 형성하려 시도하지만 이것 또한 명백하지 않다.

남자는 말했다.

“여차피 세상이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차고 넘친다”<sup>20)</sup>

18) 장세진, 위의 글, '환상 축(軸)의 이동: 초자연에서 언어로' 참고.

19) 로즈메리 잭슨, 위의 책, 60쪽.

20) 김영하, 위의 책, 92쪽.

#### IV. 오층과 육층 사이 어딘가 - 「엘리베이터」에 간혀버린 서사

“살다보면 이상한 날이 있다.”<sup>21)</sup>

단편 「엘리베이터에 갇힌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는 화자인 정수관 대리의 기묘한 하루 일상을 그대로 따라간다. 아침 면도로부터 시작해서, 저녁 샤워로 끝나는 이야기. 길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정 대리는 다양한 일들을 겪는데, 단지 ‘이상한 날’로 치부하기엔 개의치 않은 일들로 가득했다.

튼튼하기 그지 없는 면도기가 한 달만에 부러졌다. 출근길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버스를 타려는데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 덤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를 덮치는 큰 사고가 났다. 운전 기사가 즉사하는 큰 사고였는데도 입구에 있던 정 대리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핸드폰이나 전화 카드를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다. 공중 전화를 사용하려고 하니 고장 수리 중이었다. 버스 안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도중에 내릴 수밖에 없었다. 지저분한 행색으로 인해 프런트 데스크에서 경비원들에게 쫓겨날 뻔 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려는데 배관 공사 때문에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아 낭패를 봤다.

각각의 경우들만 따져보면 일상 속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많다. 엘리베이터에 갇힌다거나 사고를 당하는 건 겪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주위에선 제법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긴 하다. 모든 것이 한 번에 일어나는 날은 정말 평생에 한 번 경험하기 힘든 확률의 날이겠지만, ‘옆친데 덮치는’ 그런 경험들은 마치 도시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 일들은 일상에서 벗어나있다고 여겨지진 않기에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읽혀진다.

이 단편에서 걸리적 거리는 부분은 그런 일상적인 일에 있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와 연관된 일들은, 기묘할 정도로 일상성을 벗어나 있다. 물론 엘리

21) 김영하, 위의 책, 9쪽.

베이터가 고장나고 그래서 억지로 문을 열고 나오는 일 자체는 기묘하지 않다. 다만 삼동 아파트에서의 엘리베이터 고장과 정 대리 회사 빌딩에서의 엘리베이터 고장은 텍스트의 구조로 인해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두 사고는 마치 거울을 바라보듯 대칭되는 부분이 많은데, 먼저 정 대리의 집은 십오층이고 사무실의 위치 또한 십오층이다. 엘리베이터 사고를 당한 사람은 신발 한 쪽이 벗겨져 있으며, 정 대리 또한 신발 한 쪽을 엘리베이터에 두고 탈출했다. 아파트 주민들이나 회사 경비원들도 모두 엘리베이터 고장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다. 경찰의 짜증스런 얼굴로 바친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고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고, 회사쪽 엘리베이터는 누가 문을 열고 꺼내어준 것인지 미궁 속으로 빠졌다.

“아, 그래서 지금도 나는 궁금하다.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sup>22)</sup>

엘리베이터와 연관된 미스터리(Mystery)들은 소설이 끝나갈 즈음에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박을 의도적으로 텍스트 말미에 드러냄으로써 나타나는 효과가 있다. 그것은 독자로 하여금 왜 미스터리리는 항상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그렇게 서사는 개연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끔 한다. 우리가 믿는 ‘개연성’이라는 개념은 결국 수많은 우연성 속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닐까?

면도기의 부러짐과 부러지지 않음, 차량 사고가 일어날 확률, 뉴스 화면 건너편으로 보여지는 엘리베이터 사고 영상들. 다른 이들만의 사건사고일 것이라고 생각하던 ‘나’의 세계 속에 언제 파고들지 모른다. 우리는 삶을 일정한 틀으로 고정시키려 노력하고 또 그렇게 인식하지만, 현실(Reality)라는 것이 어느 순간 안정성을 상실한 채 혼돈한 상태로 다가오는 순간이 존재함을 깨닫는다.

환상 속엔 문학적 불확정성의 원리가 숨어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전까진, 그 속에 누가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지금 움직이는 이 엘리베이터가 언제 고장이 날지, 문이 열리기 전까진 알 수 없다. 또한 환상은 불

22) 김영하, 위의 책, 33쪽.

가능한 세계를 그린다. 거기엔 더 나은 현실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고 현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 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남자를 신고하러는 모든 시도가 끝내 성공하지 않듯이, 환상은 결코 해답을 찾아내지 못한다.

그러나 환상은 포기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은폐되어 있다’ 수준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것만이라도 말하고자 한다. 환상적 서사의 목적은 그 곳에 있다. 해답 없는 환상이 되풀이됨으로써 현실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깨뜨린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세계와 멀쩡히 작동하는 세계 사이, 그것을 이어주는 관리자는 환상적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V. 마무리하며

이성의 이해 능력을 벗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항상 합리적인 해석을 요구한다. 그래야만 그것이 견고히 쌓아온 현실 인식을 깨뜨리지 않기 때문이다. 환상적인 소재를 다루는 문학들은 이 지점을 흔들길 원했다. 김영하의 소설집 『엘리베이터에 갇힌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또한 다양한 소재와 기법을 통해 ‘안정적인 일상’을 비틀어서 보여주었다.

그러나 단순히 환상적 소재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런 효과를 거둘 순 없었다. 「고압선」의 서사에선 초자연적인 현상이 남자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지만, 그 현상에 대한 알레고리적 해석을 뿌리칠 정도로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굳이 투명화 현상이 없었더라도, 그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투명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것을 스스로 인식해가는 과정이 곧 육체에 나타나는 투명화 현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강한 주제 의식이 텍스트를 지배하면 독자는 참여할 여지가 없다. 환상은 독자로 하여금 망설이게 해, 그 의식을 비판적으로 깨우려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흡혈귀」에선 ‘맥거핀 효과’를 활용한다. 아내의 편지를 믿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의심하는 소설가의 추측을 서사의 결말로 삼아 독자 또

한 추리하게끔 한다. 텍스트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그 결과 텍스트는 해부의 대상이 된다. 분석의 결과는 무(無). 아무것도 아니었다. 흡혈귀에 대한 정보는 부족했고 누가 흡혈귀인지 추측하기 어려웠다. 텍스트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었고 애초에 텍스트의 화자와 작가는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명제 하에 서사가 시작되었었다. 따라서 텍스트를 통해 현실을 짚어보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엘리베이터」에 이르러서는 ‘현실(reality)’ 자체에 대해 의심하게끔 한다. 동시에 발생하기엔 매우 낮은 확률의 일상에 대해선 어떻게든 긍정할 수 있었지만, 거울상처럼 연결된 두 엘리베이터 사고에 대해선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아파트에서의 사고가 해결이 되었다면 정 대리와 비슷한 형식으로 구출되었으리라고만 추측할 뿐이지, 도대체 이 두 사고가 가뜩이나 불행한 일이 겹치는 하루에 연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알 수 없었다.

인간은 끝없는 무지(無智)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인생은 불합리로 가득해있고 삶은 미궁 속에서 끝마치는 것 같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엘리베이터를 타지만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또는 왜 고장이 나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 「엘리베이터」에서도 설명하지 않는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 삶의 회로에락에 대해서 인생이 끝내 설명하지 못하듯, 텍스트 또한 설명할 수 없다. 문학 서사가 인생의 진리를 담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일종의 환상임을, 현대적 환상은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기에 어설픈 해답을 시도하려들지 않는다.

바로 그 곳에 환상의 가치가 있다. 환상은 단단하게 확정된 세계를 깨뜨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런 환상의 파괴적인 면모가 서사 자체를 파괴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화석처럼 죽어가는 문학이라면, 스스로 메스를 대어보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스스로 상상하지 못하는 문학이 고통을 느낄 수나 있을까, 확신하지는 못하겠다.

## 참고 문헌

### 1. 기본 자료

김영하,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문학동네, 2010.

### 2. 단행본

로즈메리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환상성: 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4.

츠베탕 토도로프, 최애영 옮김, 『환상 문학 서설』, 일월서각, 2013.

### 3. 학위 논문

공지혜, 「김영하 소설의 추리서사구조와 환상성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11.

김보라, 「김영하 소설의 환상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09.

김영희, 「한국 현대 환상소설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7.

정도현, 「김영하 소설연구」, 경기대학교 석사논문, 2010.

### 4. 학술지 논문

김재경, 「김영하 소설에 나타난 환상성」, 『현대소설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이상윤, 「김영하의 ‘흙혈귀’내의 보르헤스의 환상문학적 요소」, 『중남미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01.

이현경, 「이탈로 칼비노와 김영하의 환상성 비교 연구」, 『이탈리아어문학』, 한국이탈리아어문학회, 2013.

장세진, 「90년대 환상 문학의 또다른 가능성」, 『상허학보』, 상허학회, 2003.

전용갑, 「꼬르파사르와 신환상문학」, 『이베로아메리카研究』,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15.

홍진호, 「환상과 현실」, 『카프카연구』, 한국카프카학회, 2009.

## 5. 계간지 비평

우찬제, 「미리 쓰여진 이야기와 새로 쓰는 텍스트 - 김영하론」, 『문학과 사회』 가을호, 문학과지성사, 1999.

진정석, 「시물라끄르 시대의 소설」, 『창작과 비평』 겨울호, 창비, 1999.

한순미, 「매체적 상상력과 욕망하는 주체 - 김영하의 단편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이론과 비평』 제 9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0.